

청년층 지역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비교를 중심으로

고 영 우¹⁾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직장 선택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이동경로 및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유형별로 취업이동경로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지역 잔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이 담보될 경우 취업지역을 이동하는 결정을 감행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로부터, 지역 단위에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전달한다.

I. 서론

최근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이렇게 높게 된 원인으로는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같은 경기적 요인도 있고 고용계수 저하라는 노동절약적 생산방식으로서의 전환과 같은 구조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미스매치라는 요인도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학력 미스매치의 중요성은 매우 큰데, 이는 그동안 학력 중시의 사회로 인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지만 대졸자 숫자에 적합한 일자리수가 나타나지 못함으로써 대졸 노동시장은 과잉공급, 고졸 노동시장은 과소공급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특성화고에 대한 집중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사제도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다양한 특성화고 지원 정책이 실시된 지 아직은 길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실태 및 주요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까지의 정책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과제를 찾아내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4년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의 졸업 이후 지역 이동경로 및 취업이동 결정요인 등을 동일한 시점에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전문계고 졸업자의 취업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대졸자에 비해 전문계고 졸업자의 경우 공간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문계고 졸업자의 취업에

1)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관한 연구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매우 유의미할 것이라 판단되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고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청년층의 취업지역 이동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정리한다. III장에서는 청년층 취업자의 지역이동경로의 특징을 살펴보고, IV장에서는 지역이동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직성과를 설명하는 제이론

이직 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성과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양분되어 있다. 전자가 직업탐색이론(job searching theory)과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및 노동시장분절론(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 그리고 통계적 차별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 지위획득 이론(status attainment theory)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상의 이론과 선행연구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tensen(1986)과 Pissarides(2000)에 의해 제기된 직업탐색모형의 핵심은 구직자가 정보의 불완전성(imperfect information)이나 지역적 불일치(locational mismatch) 등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즉, 시장에서 구직자는 사전에 어떤 일자리가 제안될 것인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 여부의 결정은 수용 가능한 조건부 기대임금에 기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직자는 자신의 학력수준보다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애수입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직업탐색을 통해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한다.(김용성, 2008; 김동규·어수봉, 2010).

이와 관련, Sicherman(1991)과 Rubb(2003)은 미국에서 하향취업 근로자는 빈번한 노동이동을 통해서 적합한 일자리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대졸 청년층(23-29세)의 경우 경력변동 자체는 이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규·어수봉, 2010). 즉 장기적으로는 직업을 바꾸는 것이 임금상승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취업능력이 있는 대졸 청년층에게는 경력변동이 직장탐색을 통해 일궁합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합리적 선택과정이라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성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인 인적자본론 역시 근로자들의 이직성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인적자본론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반하여 노동시장의 성과를 접근한다. 그러나 신고전경제학의 노동시장론과는 다르게 공급되는 노동력이 동질적이라는 가

정을 포기하고 생산성은 투자의 질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Becker(1964)는 노동자의 질적 차이는 학력과 기능수준 등과 같이 개인이 투자한 인적자본 축적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요컨대,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은 개인이 쌓은 인적자본의 양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배제나 성별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강조된다. 소위 말하는 ‘눈높이론’ 즉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이 좋지 못한 일자리에 우선 취업한 후 노동시장 경력을 쌓아, 좋은 일자리의 재취업을 강조하는 주장은 상술한 직업탐색이론과 인적자본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한 이론이 근로자들의 이직성과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이중노동시장론, 통계적 차별이론, 지위획득 이론 등은 이직 문제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먼저 Doeringer and Piore(1971)에 의해 제기된 이중노동시장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의 보장으로 특징지어지는 1차 노동시장과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저임금으로 정의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은 자본집중도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노동시장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을 누린다. 더불어 기업은 고용안정과 승진이 보장된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 결과, 2차 부문 노동력은 1차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두 시장 간에 커다란 장벽이 존재하게 된다. 2차 부문 노동력은 직무의 성격으로 숙련정도가 더디면서, 불안정한 고용으로 경력개발이 쉽지 않아 1차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제한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반면 1차 부문 노동력은 일정수준의 고용안정성을 보장 받으면서, 경기 불황시 해고되더라도 회복세에 접어들 경우 재고용될 확률이 높다(윤진호, 1989).

국내에도 초기 노동시장의 경험은 이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병희, 2002; 전용석·김준영, 2003; 이시균, 2010). 일반적으로, 첫 직장의 임금수준이 높거나 대기업 또는 정규직일 경우 이직성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여성의 경우 이직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직과 유사한 정규직이 보편적인 2차 노동시장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임찬영·조준모, 2006).

상술한 이중노동시장론이 노동시장을 1차 부문과 2차 부문으로 구별했다면, 노동시장분절론은 1차 노동시장부문내의 직업들 간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노동시장이 상층 1차 부문과 하층 1차 부문 그리고 2차 부문의 세 분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1차 노동시장의 상층부는 전문·관리직으로 구성되며 공식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일반적 특성들(general traits)’이 취업의 주요 요건이 된다. 반면, 1차 노동시장의 하층부는 하위 사무직으로 채워지며, 공식교육보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습득되는 직접적 능력 위주의 ‘특수한 특성들(specific traits)’이 강조된다. 한편, 2차 부문 노동시장은 하층계급 부문문화에서 나타나는 사회학적인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다(심윤중 외, 2005).

다음으로 Phelps(1972)와 Arrow(1973)에 의해 제기된 통계적 차별이론은, 노동시장에서 개인

간의 차별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된다. 이 이론은 직업탐색이론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이직 가능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직업탐색이론과는 다르게 노동시장에서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성별, 학점, 편입여부 등과 같이 쉽게 관찰되는 근로자들의 특성이 채용이나 임금수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통계적 차별이론은 기본 가정에 따라 고정관념(stereotype)모형과 정보의 정확성(precision of information)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관념 모형에 따르면, 기업은 여성의 생산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채용 및 승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여성의 인적자원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기업의 사전적 믿음을 강화, 통계적 차별이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Coate and Loury, 1993).

정보의 정확성 모형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생산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제 생산성과 기업이 인지하는 생산성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차별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 Lundberg(1991)는 성별에 따라 근로자의 생산성 정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면 여성은 통계적 성차별을 겪게 된다고 설명하였다(금재호, 2004).

마지막으로 지위획득이론은 개인적인 능력이외에 부모의 재력과 학력 등과 같은 가족배경 요인을 강조한다. Blau and Duncan(1967) 이래로 국내의 조우현(1995), 방하남·김기현(2001) 장상수·손병선(2005) 등은 가족배경을 비롯한 귀속적 요인들이 개인의 교육성취와 직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왔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SES가 높을수록, 취업확률과 더불어 질 높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인구학적 특성 및 가정배경, 학교 및 경력개발 변수들을 모형에 투입하여 전문계고 및 일반계고 졸업 청년층의 첫 직장 선택에 있어서의 지역이동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청년층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청년층 노동이동에 대해서는 그 원인적인 측면보다는 청년층의 노동이동 실체와 그 결과적 함의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Topel and Ward(1992), Connolly et al.(1992), Gadecki and Neumark(1998), Neal(1999) 등의 연구가 그러한 예이다.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해 가는 직업탐색과정으로서 청년노동이동을 파악하는 경우는 Topel and Ward(1992)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사업체-근로자의 장기추적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이동이 임금상승을 동반하는 경력일치 과정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높은 노동이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청년층의 초기노동시장 경험과 결부된 임금증가를 경험에 의한 정보의 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노동이동의 패턴은 미국과 프랑스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나,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는 적한하지 않아, 영국의 경우 청년기의 빈번한 노동이동이 하향적 직업이동으로 나타나며, 스웨덴에서는 더 적은 임금증가를 가져온다는 연구도 있다(Ryan, 2001).

Gadecki and Neumark(1998)는 NLSY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졸업 후 5년간 경험한 일자리의 안정성이 이후 직장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초기노동시장 경험이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동일한 NLSY 자료를 이용한 Light and McGarry(1998)는 청년층 노동이동이 적은 취업자에 비해,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취업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으며, 저임금을 동반하는 이동경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분단노동시장에서의 2차 노동시장에서의 빈번한 노동이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Connolly et al.(1992)도 NES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되지 않는 고저요과를 통제하면서 많은 직장이동이 임금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청년층 노동이동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먼저 채창균 외(2004)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취업횟수 및 실업기간, 취업시 평균 근속기간, 기업규모간 이동, 직종간 이동, 업종간 이동을 구체적으로 보고, 청년층의 규모간 이동이 활발하며, 직종간 이동이 매우 활발해 동일직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절반이 되지 않으며, 업종간의 이동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보이고 있다. 김준영·전용석(2003)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첫 직장의 고용형태가 이후 직장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전 직장에서 비정규직 경험은 새로운 직장에서 비정규직 취업의 확률을 높임을 보이고 있고, 기업규모별 이동에서도 청년층이 직장이동을 통해 노동시장의 성과를 개선하고 있지 못함을 보이기도 있다. 이병희(2001)은 실직근로자인 청년의 경우 재취업시 경력변동률이 높아, 실직 청년들에게 노동이동인 경력일치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보기 힘들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병희 외(2002)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첫 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이 이후의 취업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장이동이 많은 경우 인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이고, 청년층의 빈번한 직장이동이 더 나은 일자리를 통한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병희(2003)는 청년층의 노동시장을 분석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이동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아님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2004)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이공계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지위가 높지 않으며, 노동이동을 통해서 노동시장지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노동이동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노동이동에 있어서 직장간 이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추적하지는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지역이동은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3. 고졸 취업자의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

대졸 진학률이 크게 높아지고 그 결과 대졸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 상황이 심화되면서 학력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학력 혹은 스펙보다 능력 중심의 노동시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화되면서 대학 진학으로 몰리는 학생들을 특성화고 입학-졸업-노동시장 진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등장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특성화고 진학자들에 대한 수업료 면제, 마이스터고의 설립, 선취업-후진학 제도의 활성화, 공공기관의 특성화고 채용 우대정책 등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맞물려 이전에 비해 특성화고를 주제로 한 연구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에 관한 지원정책의 핵심이 결국 졸업자의 취업 문제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관련 주제 중 취업에 관한 사안들이 연구주제들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선행연구의 흐름은 크게 사례 연구와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 연구로는 한국고용정보원(2011)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는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특성화고 취업지원 기능 현황과 취업실태에 관해 분석하였다. 사례 연구는 특성화고 연구의 초기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시만 해도 통계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료 구축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에 관한 연구를 촉발시키고 발전시킨 것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발표한 「201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2011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HSGOMS)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졸자의 취업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지만, 전국적인 표본으로 고졸자에 관한 취업조사를 실시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인문계, 특목고 졸업자의 대부분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발표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대상자는 사실상 대부분이 특성화고 졸업자였다. 물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활용한 장현진·이지혜(2012)의 연구도 있지만,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에 관한 통계분석의 다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졸자 취업진로조사」가 공개되고 난 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한 주요 연구로는 강순희(2013), 남미자 외(2013), 윤윤규 외(2013) 등을 들 수 있다. 강순희(2013)는 「201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실태와 취업결정요인,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고졸 취업자는 대졸 취업자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고 직장에서의 업무와 교육수준간 미스매치가 심하고, 구직정보 취득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구명하였고,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석출하였다. 남미자 외(2013) 역시 「2011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특성화고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직업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졸업생들의 직업만족도가 높았고, 직무일치도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밝혔다.

윤윤규 외(2013)는 앞의 두 연구와 달리 부산이라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춰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취업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의 규모와 전공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의 유출입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졸업자의 유출을 결정하는 요인과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과 월평균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회귀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자 중 흥미와 적성 때문에 전공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18.0%에 그쳐 학업과정, 노동시장 진입과정, 노동시장에서의 만족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부산 소재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조사 시점에서 취업한 자 중 300인 대기업에 취업한 자의 비중은 37.4%였다. 그리고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의 유출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고교 성적에서 중위권 졸업자는 부산에서 취업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상위권과 하위권 졸업자는 외부로 유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여부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률이, 상업계열이나 종합·실업·기타 계열보다는 공업계열의 취업률이 더 높았고,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고교 성적이 높을수록, 학교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률이 더 높았다.

본 연구는 전문계고 졸업자의 취업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연구들과 유사성을 가지지만,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전문계고 졸업 청년들과 일반계고 졸업 청년들의 진학 및 취업경로에 있어서의 지역이동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국의 전문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전문계고 졸업자의 지역이동경로와 취업결정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서 지역별 비교분석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한다.

Ⅲ. 청년층 취업자의 지역이동경로 특성

1.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특성

가. 특성화고 현황

2015년 현재 전국의 특성화고 학교 수는 498개이다. 지역별로 특성화고 학교 수를 보면, 경기도가 75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71개가 소재한 서울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하면 모두 146개로 전국 특성화고 학교 수의 30% 가까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과 전남이 각각 51개와 45개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과 경남에 각각 36개의 특성화고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특성화고 학생 수는 모두 302,021명이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수가 약간 더 많다. 학생 수에서도 경기도와 서울의 순을 보이고 있으며, 두 지역의 학생 수 합계는 107,624명으로 전국 특성화고 학생 수의 30%를 넘어서고 있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중에서는 부산의 특성화고 학생 수가 22,8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전국 및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의 경우 남학생 수에 비해 여학생 수가 더 많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는 크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의 취업반 학생으로 구분되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특성

화고를 포함해서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의 취업률은 46.6%, 진학률은 36.6%였다. 이 중 특성화 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47.6%,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90.4%, 그리고 일반고 취업반 졸업자의 취업률은 22.9%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의 취업률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이후 크게 상승하였다.

〈표 1〉 지역별 특성화고 학교 수 및 학생 수(2015년)

(단위 : 개, 명)

	학교 수	학생 수		
		남자	여자	소계
총계	498	168,686	133,335	302,021
서울	71	23,279	25,831	49,110
부산	36	13,894	8,929	22,823
대구	18	10,458	6,436	16,894
인천	27	11,021	10,506	21,527
광주	11	5,534	4,433	9,967
대전	10	5,182	4,181	9,363
울산	8	4,304	3,402	7,706
세종	1	375	82	457
경기	75	32,067	26,447	58,514
강원	24	6,246	3,239	9,485
충북	24	8,349	6,739	15,088
충남	26	7,508	5,253	12,761
전북	29	7,777	5,625	13,402
전남	45	10,065	7,426	17,491
경북	51	10,612	6,339	16,951
경남	36	9,918	6,556	16,474
제주	6	2,097	1,911	4,00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사이트(<http://kedi.re.kr>); 류장수·조장식(2016)에서 재인용.

나. 전문계고 졸업자의 지역이동

졸업한 전문계 고교 소재지별로 첫 직장 소재지를 추적한 결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졸업자 중 92.1%가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였고,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직장으로 이동한 비중은 7.9% 수준으로, 수도권 졸업자의 인력유출 규모는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중에서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졸업자의 해당 지역 잔류 비중이 82.5%로 가장 높았고, 강원권의 잔류 비중이 58.5%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지역 전문계 졸업자도 약 59.0% 정도만 해당 지역내에서 첫 직장을 구한 것으로 나타난 바, 호남권 및 강원권 지역의 경우에는 인력유출의 규모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전문계고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지역 이동경로

(단위 : 명, %)

고등학교 소재지	첫 직장 소재지						전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동남권	강원권	
수도권	398	23	3	2	3	3	432
	(92.1)	(5.3)	(0.7)	(0.5)	(0.7)	(0.7)	(100)
충청권	35	110	1	2	-	-	148
	(23.7)	(74.3)	(0.7)	(1.4)	(-)	(-)	(100)
호남권	63	20	128	3	2	1	217
	(29)	(9.2)	(59)	(1.4)	(0.9)	(0.5)	(100)
대구경북권	31	10	1	150	11	1	204
	(15.2)	(4.9)	(0.5)	(73.5)	(5.4)	(0.5)	(100)
동남권	8	5	-	19	156	1	189
	(4.2)	(2.7)	(-)	(10.1)	(82.5)	(0.5)	(100)
강원권	16	-	-	-	1	24	41
	(39.0)	(-)	(-)	(-)	(2.4)	(58.5)	(100)
전체	551	168	133	176	173	30	1,231
	(44.8)	(13.7)	(10.8)	(14.3)	(14.1)	(2.4)	(100)

주: 1)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충청권은 대전·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 대구경북권은 대구·경북,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강원권은 강원 지역을 의미하며, 제주 및 해외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소괄호() 안의 값은 지역내 졸업자 대비 해당 지역 취업자수 비중(행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 원자료.

2.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특성

가. 일반계고 졸업자의 취업이동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지역과 취업지역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졸업자 중 무려 93.9%가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였고,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직장으로 이동한 비중은 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전문계 고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인력유출 규모는 아주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중에서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졸업자의 해당 지역 잔류 비중이 75.2%로 가장 높았고, 강원권의 잔류 비중이 48.6%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강원 지역 일반계고 졸업자의 경우에는 절반이상 다른 권역에서 첫 직장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수도권에 직장을 구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잔류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잔류 비중이 전문계고 졸업자의 잔류 비중보다 적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에 따른 진학이동이 이미 발생한 효과일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 일반계고 졸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권역 잔류 또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의 비중은 10%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일반계고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지역 이동경로

(단위 : 명, %)

고등학교 소재지	첫 직장 소재지						전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동남권	강원권	
수도권	412	12	2	1	3	9	439
	(93.9)	(2.7)	(0.5)	(0.2)	(0.7)	(2.1)	(100)
충청권	28	75	-	1	1	4	109
	(25.7)	(68.8)	(-)	(0.9)	(0.9)	(3.7)	(100)
호남권	38	4	67	1	5	1	116
	(32.8)	(3.5)	(57.8)	(0.9)	(4.3)	(0.9)	(100)
대구 경북권	20	3	1	91	9	-	124
	(16.1)	(2.4)	(0.8)	(73.4)	(7.3)	(-)	(100)
동남권	29	4	-	5	121	2	161
	(18.0)	(2.5)	(-)	(3.1)	(75.2)	(1.2)	(100)
강원권	15	2	-	1	-	17	35
	(42.9)	(5.7)	(-)	(2.9)	(-)	(48.6)	(100)
전체	542	100	70	100	139	33	984
	(55.1)	(10.2)	(7.1)	(10.2)	(14.1)	(3.4)	(100)

주: 1)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충청권은 대전·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 대구경북권은 대구·경북,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강원권은 강원 지역을 의미하며, 제주 및 해외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소괄호() 안의 값은 지역내 졸업자 대비 해당 지역 취업자수 비중(행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 원자료.

나.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학이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경우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첫 직장을 구하는 직장이동에 앞서 대학 진학에 따른 진학이동이 먼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계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고교 졸업지역에서 직장 소재지역으로 이동경로를 분석함에 있어서, 대학 소재지로의 경유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는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이동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권 고교 졸업생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권역내 대학에 진학하는 비중이 75%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대구경북권의 경우에는 권역내 대학 진학 비중이 80%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계 고교 졸업생 중 해당 권역에 잔류 또는 수도권으로의 진학이동하는 비중은 약 85~9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반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지역 이동경로

(단위 : 명, %)

고등학교 소재지	대학 소재지						전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동남권	강원권	
수도권	297	50	9	2	1	5	364
	(81.6)	(13.7)	(2.5)	(0.6)	(0.3)	(1.4)	(100)
충청권	14	73	4	4	-	1	96
	(14.6)	(76.0)	(4.2)	(4.2)	(-)	(1)	(100)
호남권	10	6	70	3	2	-	91
	(11.0)	(6.6)	(76.9)	(3.3)	(2.2)	(-)	(100)
대구경북권	8	4	1	92	9	1	115
	(7.0)	(3.5)	(0.9)	(80.0)	(7.8)	(0.9)	(100)
동남권	11	6	3	13	105	-	138
	(8.0)	(4.4)	(2.2)	(9.4)	(76.1)	(-)	(100)
강원권	16	3	-	2	-	11	32
	(50.0)	(9.4)	(-)	(6.3)	(-)	(34.4)	(100)
전체	356	142	87	116	117	18	836
	(42.6)	(17.0)	(10.4)	(13.9)	(14.0)	(2.2)	(100)

주: 1)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충청권은 대전·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 대구경북권은 대구·경북,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강원권은 강원 지역을 의미하며, 제주 및 해외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소괄호() 안의 값은 지역내 고교 졸업자 대비 해당 지역 대학 진학자수 비중(행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 원자료.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지역과 첫 직장 소재지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충청권(대전·충북·충남)과 대구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대학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비중이 고교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의 일치 비중보다 높으며, 전문계고 졸업생의 지역이동 비중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진학이동이 취업이동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지역이동은 진학을 통해 발생하고 대학 진학(특히, 수도권으로의 진학) 이후 취업이동을 통해서 그 규모가 크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이 어느 정도 비중있게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문계고 및 일반계고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에 따른 지역이동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계 고교 졸업생보다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지역 잔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취업에 의한 지역이동 이전에 대학 진학으로 인한 지역이동이 발생하는데,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은 대부분 진학이동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잔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일반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지역별 첫 직장 취업지역 이동경로

(단위 : 명, %)

대학 소재지	첫 직장 소재지						전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동남권	강원권	
수도권	335	6	2	3	2	8	356
	(94.1)	(1.7)	(0.6)	(0.8)	(0.6)	(2.3)	(100)
충청권	55	75	3	2	3	4	142
	(38.7)	(52.8)	(2.1)	(1.4)	(2.1)	(2.8)	(100)
호남권	23	3	54	-	6	1	87
	(26.4)	(3.5)	(62.1)	(-)	(6.9)	(1.2)	(100)
대구경북권	22	4	1	79	9	-	115
	(19.1)	(3.5)	(0.9)	(68.7)	(7.8)	(-)	(100)
동남권	6	1	-	5	103	2	117
	(5.1)	(0.9)	(-)	(4.3)	(88.0)	(1.7)	(100)
강원권	3	-	-	1	-	14	18
	(16.7)	(-)	(-)	(5.6)	(-)	(77.8)	(100)
전체	444	89	60	90	123	29	835
	(53.2)	(10.7)	(7.2)	(10.8)	(14.7)	(3.5)	(100)

주: 1)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충청권은 대전·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 대구경북권은 대구·경북,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강원권은 강원 지역을 의미하며, 제주 및 해외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소괄호() 안의 값은 지역내 고교 졸업자 대비 해당 지역 대학 진학자수 비중(행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 원자료.

IV. 청년층 첫 직장 지역이동 결정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I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각각 첫 직장을 구함에 있어서 지역이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기준 취업지역이동 및 권역별 지역이동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첫 직장 취업을 위한 지역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사이의 결정요인의 패턴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가정하여 최소자승(OLS) 추정법을 활용한 추정계수를 도출하였다. <표 6>은 이러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기준으로 취업지역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결정요인의 매커니즘은 전문계고 졸업생이나 일반계고 졸업생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 영향의 크기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을 통한 지역이동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성별로 취업이동의 확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여부는 취업이동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수준은 전문계 고교 졸업생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 대비하여 다른 지역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취업이동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취업이동의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가 주어질 때, 지역이동의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6개 권역별로 취업이동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광역 시도 기준으로 취업이동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직장 규모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여, 1,000인 이상 규모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고교 졸업생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임금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으로 취업이동 확률을 높이는데 임금수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상용직 여부 변수와 직장 규모 변수들은 전문계 고교 졸업생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일자리인지 여부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에게 중요한 요소인 반면, 일반계 고교 졸업생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과 관련하여,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고, 이 과정에서 이미 비수도권 일반계 고교 졸업생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이 더 이상 취업이동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의 안정성 여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는 경향을 보인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정보를 함께 포함한 회귀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6〉 첫 직장 취업이동 결정요인 분석 (선형확률모형)

		모형1: 시도별 취업이동		모형2: 권역별 취업이동		모형3: 수도권으로 취업이동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여성		0.082**	0.02	0.059*	-0.042	0.133***	0.005
상용직여부		0.085**	0.089**	0.060**	0.064**	0.074**	0.062
로그 임금		0.072**	0.008	0.065**	0.031	0.127***	0.089**
고교 지역 (기준: 수도권)	충청권	0.097**	0.218***	0.096**	0.269***	(기준)	(기준)
	호남권	0.197***	0.226***	0.234***	0.360***	0.096*	0.061
	대구경북권	0.083*	0.113**	0.120***	0.223***	-0.048	-0.067
	동남권	-0.003	0.083*	0.053*	0.174***	-0.132***	-0.085
강원권		0.241***	0.280***	0.377***	0.506***	0.284***	0.238**

		모형1: 시도별 취업이동		모형2: 권역별 취업이동		모형3: 수도권으로 취업이동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직장 규모 (기준: 10인미만)	10~49인	-0.009	0.086*	0.011	0.023	0.076*	0.002
	50~299인	0.065	0.130**	0.019	-0.008	0.101**	-0.04
	300~999인	0.119**	0.161**	0.087*	0.089	0.161**	0.05
	1,000인이상	0.221***	0.181***	0.193***	0.108***	0.117**	0.220***
산업 통제		○	○	○	○	○	○
직업 통제		○	○	○	○	○	○
취업년도 통제		○	○	○	○	○	○
상수항		-0.462**	-0.634***	-0.348*	-0.563***	-0.455**	-0.660**
결정계수		0.196	0.137	0.248	0.206	0.251	0.178
표본수		1,029	773	1,029	773	615	414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모형2와 모형3에서는 권역 외 지역으로의 취업을 취업이동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I 원자료.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이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지역이동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분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적 이동이 적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이동에 관한 분석에서 지역별 차별성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계고 및 일반계고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에 따른 지역이동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계 고교 졸업생보다는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지역 잔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전문계 고교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공간적 제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취업에 의한 지역이동 이전에 대학 진학으로 인한 지역이동이 발생하는데, 수도권으로의 취업이동은 대부분 진학이동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고, 이후 잔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년층의 첫 직장 취업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안정성 및 임금수준 등의 변수들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보다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공간적 이동이 좁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높은 수준이 담보되어야 지역을 이동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지역이동,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동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바, 지역 단위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지역 입장에서

인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과는 달리,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취업지역 선택은 대학 졸업 이후로 미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이동 역시 진학이동과 취업이동의 2단계에 걸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단계별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진학 및 대학졸업 이후 취업 단계의 분석이 구분되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 참고문헌 ❖

- 강순희(2013),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13(3).
- 김준영·전용석(2003),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용동향분석』 2003 3/4분기: p.223-245.
- 류장수·조장식(2016), 「특성화고 졸업자의 지역 이동경로 및 취업결정요인 분석: 지역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4(2): p.199-218.
- 박성준(2004),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이공계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7(1): p.55-76.
- 윤윤규·이상호·류장수·박성익·조장식·옥성수·서옥순(2013), 『부산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고용정책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2001), 「청년 실업과 경력 형성」, 『산업관계연구』 11(2): p.153-176.
- _____(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p.1-18.
- _____(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장현진·이지혜(2012),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5(2).
- 채창균 외(2004), 『청년층 교육·훈련과 고용(I):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고용정보원(2011),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Connolly, S., J. Micklewright, and S. Nickell(1992), “The Occupational Success of Young Men Who Left School at Sixteen,”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44(3): p.460-479.
- Doeringer, P. B. and M. J. Piore(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 Gadecki, R. and D. Neumark(1998). “Order from Chaos? The Effects of Early Labor Market Experiences on Adult Labor Market Outcom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51(2): p.299-322.
- Light, A. and K. McGarry(1998), “Job Chage Patterns and the Wages of Young 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 p.276-286.
- Neal, D.(1999), “The Complexity of Job Mobility among Young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2): p.237-261.
- Ryan, P.(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1): p.34-92.
- Topel, R. H. and M. P. Ward(1992), “Job Mobilit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2): p.439-479.

❖ Abstract ❖

A Study on Determinants of Youth Regional Mobility: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General High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KOH, Young-Woo (KL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gional migration pathways and their determinants in the job search process of young people. In particular, the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between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nd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migration pathways and their determinants by type of high school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data, the proportion of local stayers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s relatively high. In addition,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were shown to make a decision to move to a job area if the factors related to job quality were secured. From this, the implication is that the employment policy that improves the quality of jobs at the local level can prevent the outflow of young population.

Key words: regional mobility,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young people